

Scene 1

새벽 시간 고요한 서현동의 전경과 패닉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는 시우의 모습을 몽타주 기법으로 교차한다.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며 전과 후의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씬

#Scene 2 시우 집 (아침)

괴물 새의 공격으로 자신 이외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생각에 패닉에 빠진 시우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한다. 소꿉친구 가인에게서 전화가 걸려 오고 자신 이외의 생존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과 희망을 준다. 둘은 밖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만나기로 한다.

#Scene 3 시우네 집 (오후) 시우는 가인과 합류해 동네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보지만 아무도 없다. 그때 괴물 새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며 가인은 두려움과 패닉에 빠져 정신 나간 사람처럼 횡설수설한다. 시우는 그런 가인을 집으로 힘겹게 데리고 와 앞으로의 처사와 생존 방향에 관해 이야기하며 가인을 설득하지만, 괴물 새의 영향으로 극대화된 그녀의 부정적 태도와 미쳐버린 그녀를 결국 거실에 홀로 남겨두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Scene 4 (밤)

깜빡 잠이 든 시우가 일어나 가인을 찾지만, 가인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시우는 없어진 가인에게 절망과 죄책감에 힘들어하지만, 다시 결의를 다지고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처음엔 서툴렀던 그가 점점 생존에 적응해가며 능숙해지는 모습과 은신처가 자리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Scene 5 시우네 집

가인이 갑작스럽게 복귀한다. 그녀의 정신상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시우는 그녀가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사실 만으로 기뻐한다. 하지만 가인은 시우가 자리를 비울 때나 같이 있을 때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정상적으로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 같았다. 처음엔 시우도 그녀를 말리진 않지만, 지속적인 그녀의 기행으로 그녀를 제지하지만 결국 몸싸움이 일어나 우발적으로 그녀를 살해하고 만다.

#Scene 7 편의점, 마트

시우는 그녀를 살해한 죄책감과 좌절감에 폐인처럼 살아간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본능에 이끌려 음식을 구하러 편의점으로 향한다. 음식을 먹던 시우는 누군가에 의해 후두부 가격당하고 눈을 떴을 땐 수아라는 또 다른 생존자에게 속박된 상태다. 비밀 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수아는 시우를 그대로 두고 떠나려 하지만 시우는 자신의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자신도 연구소로 같이 가자고 한다.

#Scene 8 시우 집

시우는 가인에게서 괴물 새에 관련된 정보와 연구소에 대해 듣게 된다. 여기서 가인이 왜 미쳐버렸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풀리게 되는 씬이다. 후반 부분에서 몽타주 기법으로 시우와 수아가 함께 생존해가며 결속과 친밀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표현한다.